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11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9 국외 항만 주요 동향
 32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부산항,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 운영사 신선대감만터미널(주) 최종 선정
-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100만 명 달성
- 평택항,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과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 의향서 체결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중국, 美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중단
- 말레이시아 Port Klang, '25년 세계 Top 10 진입하며 동남아 환적허브 위상 강화
- 머스크, 인도 항만 인프라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25년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
- 미중 대두 무역정책 타결, 미국산 대두시장 회복 기대감 확대
- 미국 석탄 수요, 40년 만에 최대 증가세 기록

0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1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 운영사 신선대감만터미널(주) 최종 선정¹⁾

부산항만공사(BPA, Busan Port Authority)는 북항 감만부두 2번 선석 임대차 계약을 신선대감만터미널(주)(BPT)와 체결했다고 밝힘

- 이번 계약으로 BPT는 '26년부터 기존 신선대부두(5개 선석)와 감만부두 3·4번 선석에 더해 감만부두 2번 선석을 추가 확보하여 총 8개 선석을 운영하는 부산항 최대 규모의 터미널을 갖추게 됨
- BPT는 북항의 소규모·다수 운영체계를 통합해 '16년에 출범한 운영사로, 통합 과정에서 승계한 기존 인력·장비를 활용해 2번 선석 운영을 조기 안정화할 계획임
- 북항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일반부두로 임시 운영되던 감만부두 2번 선석은 이번 계약을 통해 다시 컨테이너 부두로 전환되며, 일반부두 기능은 올해 11월 준공되는 감천항 대체부두로 이전될 예정임

BPA와 정부는 신항 개장과 북항 재개발 착수 이후 북항 기능 재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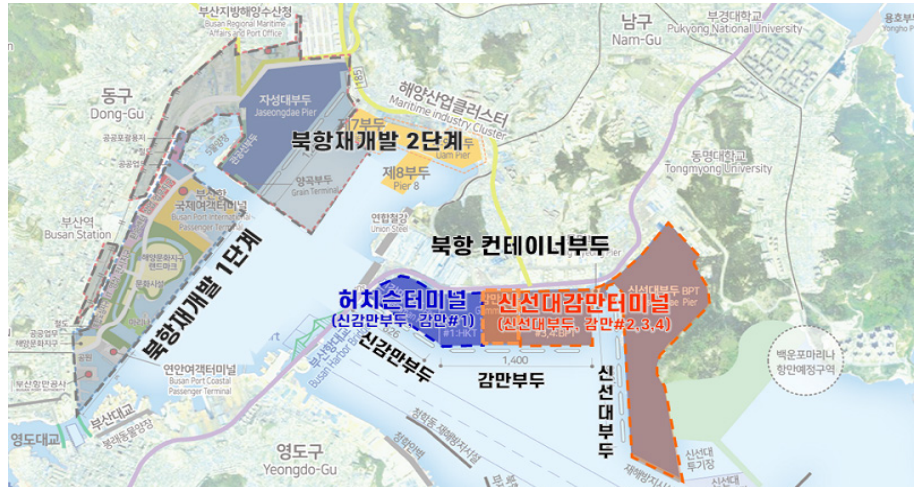
-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은 북항 재개발 2단계 추진에 따라 자성대부두 운영을 46년 만에 종료하고 신감만부두로 이전하여 정상화함
- 이로써 북항은 현재 BPT와 한국허치슨터미널 등 총 2개 운영사 체계로 정비됨

한편, BPA는 북항의 아시아 및 국제선사 핵심 거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높일 계획임

- 노후 인프라를 선박 규모와 운영 여건에 적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재편하고, 북항 3개 부두 간 연계 운영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방침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12.),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403>(2025.11.21. 검색)

북항 컨테이너 터미널 현황



자료: 부산항만공사,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403>(2025.11.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²⁾

❖ BPA는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과 인터지스중앙부두(주)와 함께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

-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 기업이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성과를 배출권으로 인정받는 사업임
-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722개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 192개로 교체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감축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임

❖ 한편, BPA는 부두 운영사들과 협업하여 '21년부터 온실가스 외부감축사업을 발굴 및 등록을 추진하고 있음

- 육상전력설비 구축, 항만장비 전기동력원 전환 등을 통해 감축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확보한 배출권 판매수익은 항만 친환경·탄소중립 관련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음
-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 유동성을 높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4416>(2025.11.21. 검색)

2) 인천항



인천남항 아암물류
1, 2단지 전경

①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 사업 준공 승인³⁾

-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추진한 아암물류2단지 2단계 조성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

 - '25년 10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최종 준공 승인을 받은 이 사업은 '22년 6월 착공 후 38개월 동안 총 888억 원을 투입해 589천㎡ 규모의 물류 부지를 조성함
 - 아울러 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항만배후단지 기능을 확보함
- IPA는 물동량 증가와 복합물류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단계에 이어 추가 부지를 개발한 것이며, 준공 이후 기업 유치와 단지 활성화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함



자료: 부산일보(2025.10.29.),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920335313804>(2025.11.20.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0.2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036&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 (2025.11.20. 검색)

2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 100만 명 달성⁴⁾

인천항만공사(IPA, Incheon Port Authority)는 '25년 11월 중순 기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가집계로 1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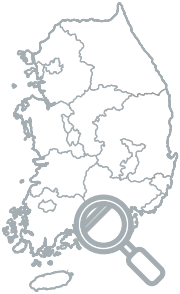
- 이는 '13년과 '19년에 이어 세 번째 달성 사례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이룬 성과이며 연안 여객 수요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올해 연안 여객은 지자체 운임지원 정책, 덕적-인천 신규 항로 개설,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 등이 맞물리며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으며, 이전 달성 연도에 비해 달성 시점이 빨라진 점이 특징임
- 연말까지 현재 흐름이 유지될 경우 역대 최고 실적 경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IPA는 주차장 확장과 대기 공간 확대 등 편의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여객 처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0.2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193&searchSelect=title&searchValue=100%EB%A7%8C+%EB%AA%85&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11.20.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31193&searchSelect=title&searchValue=100%EB%A7%8C+%EB%AA%85&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11.20. 검색))

3) 여수·광양항



1 광양항, 폐로프 재활용 안전콘 제작·배포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광양항에서 발생한 폐로프를 재활용해 친환경 안전콘을 제작하고 항만 주요 현장에 배포함

 - 해양폐기물 저감을 통한 자원순환 촉진과 항만 근로자 안전관리 수준 강화를 목표로 ESG 실천 활동을 추진함
 - 기존 폐기물로 처리되던 로프를 재가공함으로써 항만 내 순환경제 구축을 확대함
- 선박 하역 시 발생하는 폐로프를 선별·세척·분쇄해 안전콘 소재로 재가공함

 -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항만 내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제작된 안전콘은 항만 근로자의 현장 실사용 환경을 고려해 설계·제작됨
- 안전콘은 컨테이너 부두, 배후단지, 임항도로, 여수세계박람회장 행사 통제 구간 등 주요 거점에 설치됨

 - 항만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는 자원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근로자들의 환경·안전 인식 제고에 기여함
 - 공사와 협력업체 전반에 친환경·안전 중심의 근무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함
- YGPA는 순환형 항만 모델을 구현하는 의미를 강조하며 해양폐기물 재활용 기술 적용 범위를 지속 확대할 계획임

 - 환경·안전 조화를 목표로 한 지속가능 항만 조성 의지를 밝혔으며, ESG 경영 강화 기초를 유지함
 - 향후 항만 안전과 환경 개선을 결합한 다양한 실증 사업을 확대할 방침임
- YGPA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안전조끼, 규제블록, 안전펜스, 응급 키트 등 다양한 안전용품을 제작해왔음

 - 올해에는 폐플라스틱과 폐안전모를 활용해 돋보기 세트를 제작해 지역 복지시설에 기부함
 - 안전콘 재활용 사업도 ESG 경영의 확대 적용 사례로서 지역사회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06.), https://www.ygpa.or.kr/hmpg/ygp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ABA3B9B23A01427BB5B0C5E2F9E7ED65(2025.11.20. 검색)

페로프 재활용 안전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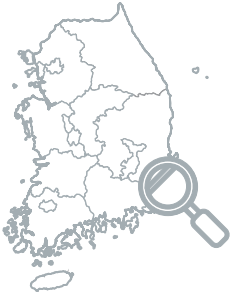


자료: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06.), https://www.ygpa.or.kr/hmpg/ygp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ABA3B9B23A01427BB5B0C5E2F9E7ED65(2025.11.2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울산항



1 울산항만공사(UPA), 전기차 화재 대비 자동차운반선 승선교육 실시⁶⁾

- UPA는 울산항 자동차부두 등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자동차운반선 승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관계기관과의 공동 대응체계 및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11월 4일과 6일, 이틀간 지역 내 긴급 구조기관인 울산해양경찰서, 울산시 소방본부 및 관내 소방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자동차 승선교육을 실시함
- 교육 과정에서 자동차운반선의 구조, 소방설비, 차량 선적 현황 등을 설명하고, 유코카캐리어스(주) 실무자가 강사로 참여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원의 선박 이해도를 높였음
- UPA는 '23년 3월 관련 10개 기관과 '선박 내 전기차 화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종합 매뉴얼을 마련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매뉴얼의 실제 적용 가능성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점검·보완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05.), <https://www.upa.or.kr/portal/board/post/view.do?bcldx=671&mid=0501010000&idx=15655>(2025.11.19. 검색)

2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추가 확보 추진⁷⁾

UPA가 울산항에서 해상환적과 질소작업이 동시에 가능한 위험물 해상환적 부두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함

- 용역은 북신항 액체부두, 신항 컨테이너부두, 한진신항 부두가 대상이며, 선행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위험성평가, 안전관리계획 및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되어 추가 지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업임
- 울산항은 현재 11개 부두 14개 선석의 제한된 해상환적 부두를 운영 중이며, 화재사고 이후 ‘울산항 위험물 해상환적 가능 부두 고시’로 인한 구조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기존 해상환적 부두의 구조적 제약과 비효율 해소를 위해 부두 추가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물류비 절감과 선석 운영 효율화가 기대됨

- 11개 부두 중 5개는 민유부두로 단독 환적이 불가능해 유휴 선석을 즉시 확보하기 어렵고, 공용부두 일부는 방파제 위치로 인해 육상 질소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임
- 질소작업이 필요한 화물은 퍼지→해상환적→블랭킷의 반복 이동이 발생해 선박 이동비용 등 물류비 증가 요인이 지속됨
- TOC 우선 배정과 사용제약 등으로 실제 환적 가능 선석이 더 제한적이며, 추가 확보 시 신규 물동량 유치와 이용자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울산매일신문사(2025.11.09.),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790>(2025.11.19.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해수청, 자동차부두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⁸⁾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평택시 및 현대차그룹, 경기평택항만공사 등 평택항 자동차부두 운영사와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협약은 평택항을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수소 항만으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도입 관련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 인허가 업무를 지원하고, 평택시는 평택항 일대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 구축을 담당함
-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마련함

 - 현대차그룹은 평택항 기아와 현대글로비스 사업장 내 수소 연료전지 발전기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을 진행하며,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각종 규제개선 등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예정임
 - 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민관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탄소중립항만 조성에 큰 의미를 가지는 첫걸음이라고 밝히며, 향후 성공적인 탄소중립항만 구축을 위해 많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8)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11.11.), [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128242\(2025.11.24. 검색\)](https://pyeongtaek.mof.go.kr/ko/board.do?menuidx=2127&bbsidx=128242(2025.11.24. 검색))

2 경기평택항만공사,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과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 의향서 체결⁹⁾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지난 18일 유럽 최대 자동차 항만인 안트워프·브뤼헤항과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함

- 이번 의향서는 국제해사기구의 '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에 부응하고,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입 1위 항만이자 미래 지속 가능 친환경 자동차 항만으로 지속 선도해 나가기 위해 기획됨
- 평택항은 연간 약 160만 대의 수출입 자동차를 처리하는 대한민국 최대 자동차 항만이며, 안트워프·브뤼헤항은 '24년 기준 연간 약 322만 대의 수출입 자동차를 처리한 유럽지역 최대 자동차 항만임

양항은 친환경 연료 개발 및 탈탄소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마련함

- 의향서 주요 내용은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도입 가속화, 대체 연료 사용과 벙커링 등 협력 로드맵 공동 탐색, 자동차 물류 및 공급망의 탈탄소화 지원, 녹색해운항로 워킹 그룹 구성 및 운영을 통한 공동 어젠다 마련 등임
-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안트워프·브뤼헤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미래 지속 가능 자동차 항만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힘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최근 민관 협력을 통한 탄소중립 항만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앞서 11월 11일 현대자동차그룹과 기아차, 현대글로벌비스,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과 함께 평택항 탄소중립 그린 수소 항만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번 안트워프·브뤼헤항과의 녹색해운항로 공동 구축 의향서 체결 등을 통하여 탈탄소를 선도하는 세계적 친환경 항만으로의 구체적 실천에 나서고 있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5.11.18.),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161&pageId=K006003001>(2025.11.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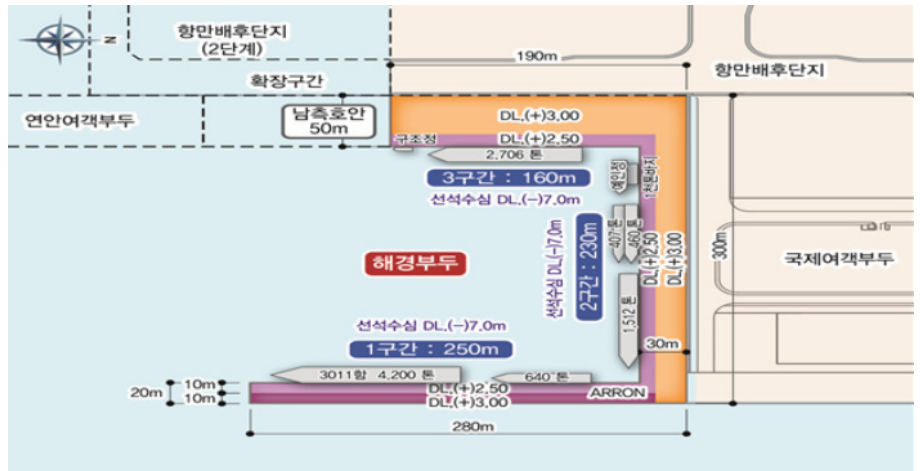
6) 포항항



영일만항 해경부두
평면도

1 영일만항 해경부두 준공¹⁰⁾

-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1월 6일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공사를 준공했다고 밝힘
 - 해당 공사는 '21년부터 총 사업비 439억 원을 투입해 길이 640m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3천 톤급을 포함해 최대 9척 함정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음
- 해경부두 준공으로 급변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 보호, 어업인 안전 확보, 해양 영토·주권 수호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료: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2492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107093744 (2025.11.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0) 노컷뉴스(2025.11.07.), https://www.nocutnews.co.kr/news/6424920?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107093744 (2025.11.21. 검색)

2 북극항로 특화전략 포럼 개최¹¹⁾

📍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11월 25일 국회에서 특화전략 포럼을 개최할 예정임

- 포럼은 ‘북극항로, 새로운 해양 패러다임과 포항 영일만항의 도전’을 주제로 진행되며, 영일만항의 전략적 역할과 활용 방안을 논의함
- 경북도·포항시·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포스텍 등 주요 국가기관 및 연구기관이 참여할 예정임
- 지역과 중앙이 함께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특화 거점항만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1) 매일신문(2025.11.20.), [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12016432716720\(2025.11.21. 검색\)](https://www.imaeil.com/page/view/2025112016432716720(2025.11.21.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산업물류 거점 조성 및 항만배후단지¹²⁾

- 동해시는 환동해권 산업물류 거점도시 조성을 목표로 항만 기능 강화 전략을 추진함

 - 동해항 배후 산업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동해시는 동해항의 복합 물류항만 전환을 핵심 과제로 설정함
- 기존 벌크 화물 중심 구조에서 컨테이너·잡화 등 다양한 화물을 취급하는 체질 개선이 요구됨

 - 북극항로 정책 확대와 연계해 항만 역할 강화 필요성이 커짐
 - 항만배후단지 지정이 자유무역지역 전환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 지적됨
-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 통과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일부 요건이 충족됨

 - 동해시는 3차 개정안에 소규모 항만도 배후단지 조성 가능하도록 포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임
- 특례 반영 시 '26년부터 배후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연계할 계획임

 - 동해항·동해신항 일대를 배후 물류단지 기반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구상했으며 자립형 항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함
- 동해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동해항의 자립형 항만 전환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필수로 분석됨

 - 분석 결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 시 1,50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됨
 - 항만·배후단지 통합 개발로 지역 산업 전반의 성장 기반 마련 효과가 나타날 전망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2) G1방송(2025.10.29.), https://www.g1tv.co.kr/news/?mid=1_207_6&newsid=335118(2025.11.20. 검색)

8) 목포항



① 전남도, 목포항 산업·에너지·관광 복합항만 육성 추진¹³⁾

- 전라남도가 14일 목포항 발전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목포항을 산업과 에너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다

 -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목포해양대학교, 전남연구원, 전남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항만운영·물류업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함
 - 참석자들은 목포항 기능 재정립과 부두 확충, 해상풍력 산업지원 거점항만 구축 방안 등 목포항을 서남권 산업지원 거점항만으로 구축하기 위한 발전전략을 제시함
- 해상풍력 물류거점 구축 및 항만 재생을 통한 도심 연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됨

 - 김화영 목포해양대 교수는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해상풍력 등 신산업 물류 수요 대응을 위한 부두 기능 재편 및 신설, 화원산단 개발, 내항 항만 재생을 통한 도심 연계 활성화 등을 주장함
 - 항만 재생을 비롯해 관광과 도시 개발 연계, 노후 부두 리뉴얼 예비타당성 대응 전략 등의 방안도 함께 논의됨
- 전남도는 목포항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킬 계획임

 - 김영록 지사는 목포항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전남도 데이터산업을 뒷받침할 해상풍력의 핵심 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함
 - 전남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화원산단 해상풍력 전용·공용부두 조성과 목포신항 지원 부두와 배후단지 확충, 내항 항만재생사업과 여객부두 확장, 목포항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예타 대응 등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3) 서울신문(2025.11.14.),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114500252&wlog_tag3=naver\(2025.11.24. 검색\)](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1114500252&wlog_tag3=naver(2025.11.24. 검색))

9) 대산항



① 내년 6월 국제 크루즈 ‘코스타세레나호’ 출항 확정¹⁴⁾¹⁵⁾

- 서산시가 롯데관광개발과 국제 크루즈 운항 협약을 체결하며 내년 6월 대산항에서 코스타세레나호가 출항하는 일정을 확정함

 - 코스타세레나호는 6월 13일 대산항을 출발해 6박 7일간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류를 경유한 뒤 19일 부산항에 도착하는 일정임
 - 오키나와 일정은 1박 2일 체류로 구성되며, 맥주·음료·생수 무제한 제공 등 특별 서비스가 포함되며, 서산시민 30%, 충남도민 20% 할인 프로모션이 제공됨
- ’26년 출항은 코스타세레나호의 마지막 한국 출항으로, 서산시는 크루즈 산업 확장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인프라 개선에 나설 예정임

 - 서산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제 크루즈 취항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였으며, 관련 시설 보수와 관광 서비스 확대를 지속해 옴
 - 내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문화 콘텐츠 개발, 선사 대상 팸투어 등 신규 크루즈 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 테마 관광 루트 개발, 숙박 패키지, 승무원·승객 대상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대규모 관광객 수용력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방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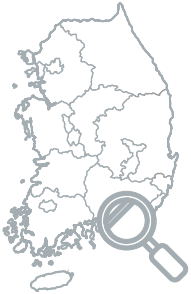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4) 뉴시스(2025.11.13.),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3_0003401881(2025.11.19. 검색)

15) 신아일보(2025.11.14.),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704>(2025.11.19. 검색)

10) 군산항



① 새만금항 인입 철도 기본계획 고시¹⁶⁾

- 군산 대야역에서 새만금 신항까지 48.3km를 연결하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고시되며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음

 - 이번 계획은 대야역-옥구 19km 구간을 전철화하고, 옥구-새만금 신항 29.3km를 신설하는 단선전철 사업으로, 옥구·새만금국제공항·수변도시·신항만 철송장 등 5개 정거장이 새로 구축됨
 - 총 1조 5,85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21년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3,397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전복도는 '26년 기본·실시설계 착수 후 '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은 새만금을 관통하는 첫 철도 노선으로, 최근 개통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함께 개발 축을 형성하게 됨

 -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 2조 2,152억 원과 고용 유발 1만 4,788명 등 경제적 효과도 제시됨

새만금항 인입철도 위치



자료: 노컷뉴스(2025.11.12.), https://www.nocutnews.co.kr/news/642711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112105649(2025.11.20.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6) 노컷뉴스(2025.11.12.), https://www.nocutnews.co.kr/news/6427113?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1112105649(2025.11.20. 검색)

11) 마산항



1 마산만 매립 기록 관리 체계 점검 필요성 제기¹⁷⁾

-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며 10만 m³ 이상 매립과 국가관리무역항 관련 허가를 지방청에 위임하고 있음

 -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 매립 허가·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립 현황 관리 의무가 부여됨
 - 두 기관은 매립 정보가 시기별 제도 변화에 따라 분산되어 있어 일원화된 기록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마산만 일대 매립은 여러 시기를 거쳐 반복되었으나 위치·면적·승인 현황 등 종합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과거 법령 체계(공유수면매립법→공유수면법) 변동과 부서별 역할 조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기존 자료의 통합·검증 절차가 부족해 매립 이력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  해양수산부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각 기관의 관리 범위를 재확인하며 기록 정비 가능성을 검토 중임

 - 해양수산부는 개별 문서 수준의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지방청은 항만 기본계획과 연계된 과거 매립 기록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외부에서는 매립 이력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체계적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됨

 - 지역 연구자료와 기존 매립 시행자 자료를 연계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언급됨
 - 기록 체계 개선을 통해 향후 매립 관련 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기관들은 현행 자료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매립 이력 관리 체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 부서 간 소관 조정 과정에서 누락된 자료나 미정비 영역을 확인할 방침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7) 경남도민일보(2025.11.03.),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9457>(2025.11.20.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10월 수출, 19개월 만에 전년 대비 감소세 기록¹⁸⁾

- 중국의 10월 수출이 높은 기저효과와 조기 선적 모멘텀 약화로 전년 대비 1.1% 감소함**
 - 수출 감소는 '24년 3월(-7.5%) 이후 처음이며, 시장 예상치였던 3% 증가와 큰 차이를 보임
 - 이는 지난해 10월의 높은 기저효과와 무역규제 유예에 따른 조기선적 효과가 소멸된 영향으로 분석됨
 -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노동시장 약세로 소비 수요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1.0% 증가에 그침
- 對미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약 25% 감소하며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함**
 - 다만 최근 양국이 고관세, 핵심 광물 및 첨단기술 수출 통제 등 주요 제재를 철회하기로 합의하면서 긴장이 일부 완화됨
 - 미국향 물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0월 누적 수출은 시장 다변화 노력에 힘입어 전년 대비 5.3% 증가함
 - 특히 ASEAN, EU, 아프리카향 수출이 각각 14.3%, 7.5%, 26.1% 증가함
- 한편, 전문가들은 중국 차기 5개년 계획에서 산업 고도화와 신흥시장 확대 전략이 강화되고 있어 연 3.5~5% 수준의 수출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CNBC(2025.11.06.), <https://www.cnbc.com/2025/11/07/chinas-exports-october-trade-data.html>(2025.11.21. 검색)

2 美선박 입항 수수료 부과 중단¹⁹⁾

- 중국이 미국의 해운업계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시행했던 미국 관련 선박 대상 항만 수수료를 1년간 중단함
 - 말레이시아 미·중 통상회담 결과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양국의 경쟁적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를 공식적으로 중단함
 - 중국은 한화오션과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보복 제재 역시 1년간 중단한다고 발표함
 - 해운업계는 양국의 수수료 중단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번 조치로 미·중 물류 환경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미국 정부는 협상 지속과 동시에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동맹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대화를 이어가되, 한국·일본과 역사적 수준의 협력을 유지해 미국 조선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9) SCMP(2025.11.10.),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332194/china-us-suspend-rival-port-fees-latest-trade-war-thaw>(2025.11.21. 검색)

3 ‘2025 세계 해사 상인 포럼(World Maritime Merchants Forum 2025)’ 개최²⁰⁾

-  ‘2025 세계 해사 상인 포럼’이 홍콩에서 개막하며 글로벌 해운의 친환경·스마트 전환 방안을 논의함

 - 홍콩특별행정구(HKSAR) 행정장관은 지정학·기술 변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홍콩이 안정적 국제해운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홍콩은 자유항 지위와 낮은 세제 등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제해운센터 발전지수에서 6년 연속 세계 4위를 유지함
-  홍콩은 친환경 연료 벙커링 허브 도약과 해사 서비스 경쟁력 강화, 기술혁신이 핵심 과제로 논의됨

 - 세계 최대 친환경 선박연료 생산국인 중국 본토와의 지리적 연계성이 홍콩의 연료 허브 경쟁력에 기여하는 요소로 제시됨
 - 해운 금융·법률·선박 관리 등 고부가 해사 서비스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대일로(BRI)와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GBA)에서 홍콩의 해운 허브 역할을 부각함
-  또한, 복합물류 인프라 확충과 주변국·지역과의 전략적 협력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힘

 - 홍콩은 철도-해상-육상-하천을 연계하는 복합물류 체계 구축, 본토 항만과의 파트너 포트 제도, 일대일로 국가와의 연계 강화, 친환경 해운회랑 구축 등을 추진 중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0) Xinhua(2025.11.18.), [https://english.news.cn/20251118/820a0426da6548988d2ebff1391c2cdb/c.html\(2025.11.21. 검색\)](https://english.news.cn/20251118/820a0426da6548988d2ebff1391c2cdb/c.html(2025.11.21. 검색))

2) 아시아



1 Port Klang, '25년 세계 Top 10 진입하며 동남아 환적허브 위상 강화²¹⁾

- 말레이시아 Port Klang이 Lloyd's List 기준 '25년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에 진입하며 홍콩을 추월해 역내 대표 환적항만으로 부상함

 - '24년 처리량은 1,464만TEU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으며, 말라카 해협 전략 입지와 국가 교역 정책 강화가 시너지로 작용해 40개 이상의 글로벌 선사가 이용하는 주요 환적거점으로 성장함
 - Port Klang의 성장은 단순 물동량 증가가 아니라, Northport·Westport의 운영체계 고도화와 Lembaga Pelabuhan Klang(LPK)의 통합 조정 아래 구축된 인프라 확장과 서비스 생태계 확대가 핵심 요인으로 분석됨
- Westport는 CT10~CT17 확장사업을 통해 '28년까지 처리용량을 2,800만 TEU까지 확대할 예정임

 - North port도 Wharf 9 및 인접 시설을 개량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용 능력을 강화함
 - 더불어 Carey Island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60년까지 Port Klang 전체 처리능력이 3,000만 TEU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는 동남아 항만 중 가장 공격적인 확장 계획으로 평가됨
 - 운영 측면에서 선박수리·병커링·승무원 교대 등 종합 해상서비스 체계를 갖추면서 환적화물 유지력과 네트워크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Red Sea 사태 등 글로벌 물류 교란 상황에서도 운영을 지속해 회복탄력성을 입증함
- 아세안 역내에서는 Port Klang과 Port of Tanjung Pelepas(PTP)가 말레이시아 물동량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PTP는 '24년 1,225만 TEU로 전년 대비 16.9% 증가해 세계 15위 자리를 유지함
 - 이는 동남아 지역이 단순 제조기지에서 글로벌 물류허브로 전환되는 흐름을 반영하며, 북동아 혼잡·공급망 분산 수요가 동남아 환적거점으로 이동하는 추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 LPK는 향후 글로벌 Top 5 진입을 목표로 디지털 전환, 스마트 포트 구축, 운항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말레이시아 정부 또한 녹색항만·탈탄소화와 인력 재교육 등 경쟁력 기반 강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1) Asianews Network-Sin Chew Daily(2025.11.19.), [https://asianews.network/port-klangs-meteoric-rise-aseans-maritime-beacon-and-malaysias-pride/?utm_source=chatgpt.com\(2025.11.20. 검색\)](https://asianews.network/port-klangs-meteoric-rise-aseans-maritime-beacon-and-malaysias-pride/?utm_source=chatgpt.com(2025.11.20. 검색))

2 요코하마항, 컨테이너 처리능력·초대형선 대응력 강화 추진²²⁾

- ‘24년 기준 요코하마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307만TEU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며, 환적 물동량 증가가 전체 실적을 견인함

 - ‘25년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하는 등 안정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96개 정기항로를 기반으로 북미·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항로 서비스를 확충함
- 혼모쿠(本牧) D5 터미널은 재정비가 진행 중으로, ‘24년 9월 일부 구간이 우선 개방되었고 향후 D4·D5를 하나의 700m 연속 안벽으로 운영할 계획임

 - 미나미혼모쿠(南本牧) 부두는 수심 18m의 고규격 컨테이너 터미널을 4개 선석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배후 부지 기반 시설 개선도 병행 중임
 - 신혼모쿠(新本牧) 개발은 물류단지(40ha)와 고규격 컨테이너 터미널(50ha)로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초대형선 대응을 위한 차세대 컨테이너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음
 - 항만 디지털 전환도 확대되어, 미나미혼 모쿠에서는 항만정보시스템 ‘CONPAS’를 운영하고 혼모쿠B, C 터미널에서는 차량 사전 예약제를 시범 도입해 게이트 혼잡 완화를 추진함
- 요코하마항은 탈탄소화 전략에서도 성과를 보여 ‘24년 국제항만협회(IAPH) ‘기후·에너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함

 - 항만 CO₂ 배출을 ‘30년에 ‘13년 대비 47% 감축하고 ‘50년에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린파이낸스 프레임워크 마련, 전기 예인선 건조 지원, 메탄올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실증 등 친환경 항만 프로젝트도 지속 확대함

요코하마항 혼모쿠 부두
D5 전경



자료: The Japan Maritime Daily(2025.11.07.), <https://www.jmd.co.jp/article.php?no=309862>(2025.11.20.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2) The Japan Maritime Daily(2025.11.07.), <https://www.jmd.co.jp/article.php?no=309862>(2025.11.20. 검색)

3 머스크, 인도 항만 인프라에 20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²³⁾

- 
머스크가 인도 해사주간 2025 기간 중 항만 인프라 투자, 선박 재등록, 현지 파트너십 강화를 중심으로 인도 내 사업 확장을 위한 전략적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APM Terminals는 구자라트 해사위원회와 약 20억 달러 규모의 확장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이번 확장은 컨테이너 및 액체화물 처리 인프라 강화와 전용화물회랑 및 내륙과의 복합운송 연결성 강화를 목표로 함
 - Jon Goldner APM Terminals 아시아-중동 대표는 이번 투자가 구자라트와 인도, 글로벌 무역에 새로운 기회를 여는 것이라고 강조함
- 
머스크는 인도 해운 생태계 발전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적극 추진함
 - 머스크는 구자라트 GIFT City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선박 ‘Maersk Vigo’와 ‘Maersk Vilnius’ 두 척을 인도 국기로 재등록함
 - 인도 조선소들과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협력을 강화하며, 여러 조선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함
 - Ahmed Hassan 자산전략 책임자는 인도 국기 선박 등록과 현지 조선소 활용으로 인도 해운 생태계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힘
- 
이번 이니셔티브는 인도의 해사비전 2030과 연계되며, CMA CGM도 인도 해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약속함
 - 이번 조치는 약 1조 2,500억 루피 규모로 메가 항만과 환적 허브 개발을 추진하는 인도 해사비전 2030과 부합함
 - CMA CGM은 Cochin Shipyard Limited와 LNG 이중연료 컨테이너선 6척 건조 의향서를 체결함
 - 각 선박의 용량은 1,700TEU이며 인도 국기로 등록되어 '29년부터 '31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3) gCaptain(2025.10.31.), <https://gcaptain.com/maersk-signals-2-billion-investment-in-indian-port-infrastructure/>(2025.11.24. 검색)

4 CMA CGM, 사우디 제다항에 4억 5,000만 달러 규모 터미널 합작 투자 추진²⁴⁾

프랑스 해운 및 물류 그룹 CMA CGM이 사우디아라비아의 Red Sea Gateway Terminal (RSGT)과 제다 이슬람 항만 4번 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함

- CMA Terminals가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 기간 중 체결한 이번 계약은 4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연간 260만 TEU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이 프로젝트는 RSGT가 사우디 항만청과 체결한 장기 계약 내 하위 양허 방식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RSGT의 '20년 양허 계약에 포함된 추가 용량 확충 조항의 일환임
- 새 터미널은 RSGT의 기존 운영과 인접한 별도 터미널로 운영될 계획임

CMA CGM은 이번 투자가 제다항을 홍해의 핵심 물류 게이트웨이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

- Rodolphe Saadé CMA CGM 회장은 이번 조치가 제다 이슬람 항만 개발의 새로운 단계이며 사우디 비전 2030과 부합한다고 설명함
- 그는 CMA CG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RSGT의 현지 전문성을 결합하면 제다를 홍해의 핵심 물류 게이트웨이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새 터미널은 차세대 장비와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설될 예정임

- 양사는 새 터미널이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장비 및 디지털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밝힘
- Jens Floe RSGT 그룹 최고경영자는 이번 계획이 제다항의 용량과 신뢰성, 기술 향상을 위한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강조함
- 시설이 완공되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역 환적 허브로서 제다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4) Splash247(2025.10.29.), <https://splash247.com/cma-cgm-plots-expansion-in-saudi-arabia-with-450m-jeddah-terminal-jv/>(2025.11.24. 검색)

3) 미주



① LA항, LPG 트랙터 전환으로 항만 물류의 친환경·경제성 강화²⁵⁾

- 📍 미국 서안의 LA항이 디젤 트랙터를 LPG 차량으로 전환해 항만 물류의 친환경 전환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웨스트베이슨 컨테이너 터미널(WBCT)은 단계적으로 디젤 트랙터의 LPG 엔진 차량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114대의 LPG 트랙터 중 80대는 초저 NOx 엔진을 장착해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의 중장비 초저배출 기준을 충족함
 - LPG 트랙터로 전환한 이후, 연료비를 25% 절감하는 등의 경제적 성과와 함께 충전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고 공급이 용이하며 전력망 부담이 없어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국 프로판교육연구위원회(PERC)와 국내 전문가 모두 LPG 기반 내연기술이 항만·물류 분야의 실용적 탄소저감 대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함
 - 현재 전력망 과부하, 충전시간, 운행거리 제약 등으로 전기트럭 상용화가 더딘 상황이며, LPG 기반의 친환경 내연기술이 물류 현장 탄소저감의 ‘전환기 해법 (Transition Solution)’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에너지데일리(2025.10.29.),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242>(2025.11.19. 검색)

2 HMM, 파나마운하청 초청받은 신규 ‘컨’ 터미널 개발 사업 참여 검토²⁶⁾

-  HMM이 파나마운하청이 주최한 260만 달러 규모의 항만 터미널 개발 계획 설명회에 참여하며 신규 터미널 사업 참여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설명회에는 HMM을 포함해 MOL, CMA CGM, ONE, 에버그린, APM 터미널, COSCO 해운 항만, DP 월드, 한젠틱 글로벌 터미널 등 글로벌 선사·운영사가 초청됨
- 파나마운하청은 두 개 터미널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타당성조사·기본계획 수립 후 '26년 4분기 최종 운영권자를 선정할 계획임
- 이번 사업은 건설단계 8,100개, 운영단계 9,000개 일자리 창출과 GDP 0.4~0.8% 규모 경제효과, 연간 500만 TEU 추가 확보 등 파나마 물류 허브 강화를 목표로 함
- HMM은 현재 6개국에서 8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확장과 산투스항 테콘10 입찰 참여 등 사업을 지속 확대 중임
- 해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운 터미널 사업을 확대하면서 파나마운하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6) 뉴시스(2025.10.29.), [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3552\(2025.11.19. 검색\)](https://www.theguru.co.kr/news/article.html?no=93552(2025.11.19. 검색))

4) 유럽



1 머스크 임원진, 유럽 항만 용량 확충의 시급성 강조²⁷⁾

- 머스크와 APM Terminals 임원진이 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럽이 항만을 핵심 인프라로 다루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함
 - Vincent Clerc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APM Terminals의 크로아티아 리예카 게이트웨이 터미널 개장식에서 유럽 전역에서 항만 용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 그는 인프라 투자가 무역 성장과 효율성 요구, 지정학적 현실 변화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함
 - 유럽은 항만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항만 인프라에 대해 보다 통합된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밝힘
- 북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 문제와 구조적 한계가 우려 요인으로 지적됨
 - '25년 내내 북유럽 주요 항만의 혼잡이 지속적인 문제였으며, 향후 수년간 대량의 선박 증가가 예정되어 있어 유럽이 모든 교역량을 수용할 용량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 Keith Svendsen APM Terminals 최고경영자는 유럽이 항만을 현대화하고 교역을 지원하기에 충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선박이 더욱 대형화되고 수가 증가했지만 기존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차세대 선박을 위해 건설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 항만은 공항이나 상하수도과 같은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Svendsen은 항만이 공항이나 도로, 상하수도 시스템처럼 국가 경제 운영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북유럽 주요 허브 항만 다수가 실제로는 하천항만이어서 조석 제약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는 탕헤르메드나 포트사이드, 제다 등 환적 후보 항만들이 직면하지 않는 문제라고 설명함
 - 그는 항만 현대화와 용량 확대에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며 리예카에서만 5년이 걸렸다고 강조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7) Kuehne+Nagel(2025.11.04.), <https://mykn.kuehne-nagel.com/news/article/europe-has-to-start-taking-port>(2025.11.24. 검색)

2 수에즈 운하 재개 시 유럽 항만에 최대 210만 TEU 물량 유입 전망²⁸⁾

 Sea-Intelligence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으로 수에즈 운하가 재개될 경우 최대 210만 TEU의 물동량이 급증, 유럽 항만에 화물 도착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홍해 공격으로 인해 수개월간 아프리카 우회 항로를 사용하던 선사들이 수에즈 운하 사용을 재개할 경우 글로벌 컨테이너 해운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모델링 함
- 분석에 따르면 현재 희망봉 우회 장거리 항해로 인해 약 210만 TEU의 명목 선복량, 즉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6.5%가 흡수되고 있음
- 아시아-유럽 및 아시아-미국 동부 노선은 각각 우회로 인해 항차당 약 4척의 추가 선박이 필요한 상황임

 수에즈 항로 복귀 시 유럽 항만 물량이 급증하고 혼잡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Sea-Intelligence 모델링에 따르면 선사들이 즉시 수에즈 항로로 복귀할 경우 지연된 화물의 갑작스러운 도착으로 아시아발 물량이 2주간 두 배로 증가할 수 있음
- 이는 '25년 3월 기록적 최고치 대비 39%의 유럽 터미널 물량 급증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8주에 걸쳐, 보다 통제된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역사적 최고치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Sea-Intelligence는 단계적이고 조율된 복귀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전 급증 당시 이미 주요 항만에서 심각한 혼잡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관리되지 않은 수에즈 통항 재개는 항만 터미널과 보관 구역, 배후 네트워크를 다시 압도할 수 있다고 경고함
- Alan Murphy Sea-Intelligence 최고경영자는 이번 분석이 시기 예측이 아닌 운영상 리스크를 강조하기 위한 정량적 시나리오라고 밝힘
- 단계적이고 조율된 복귀가 유럽 인프라에 대한 압력을 줄일 수 있지만 혼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음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8) Trans.info(2025.10.29.), [https://trans.info/en/suez-route-reopening-434594\(2025.11.24. 검색\)](https://trans.info/en/suez-route-reopening-434594(2025.11.24. 검색))

5) 오세아니아



1 호주 NSW(New South Wales) Ports,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²⁹⁾

-  NSW Ports는 보타니항·캠블라항·엔필드 물류센터 운영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넷제로 달성함

 - '25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전기차 도입·에너지 효율화 조치 성과를 공개함
 - 조명 개선과 난방·환기·공조(HVAC) 시스템 최적화로 각 시설의 전력 사용량이 크게 감소함
-  NSW는 '22년부터 풍력발전 구매계약(PPA)을 통해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받음

 - 엔필드 물류센터에는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발전 인증서(LGC)를 발급받아 전력 사용을 상쇄함
 - LED 조명·자동제어 등 효율화 조치를 통해 운영시설 전력 소비를 추가로 감축함
-  내연기관 차량 대부분을 전기·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해 차량 운영 배출량을 최소화함

 - 잔여 배출량(기준 대비 1.5%)은 호주 탄소배출권(ACCUs)으로 상쇄함
 - 향후 항만 이용자를 포함한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확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됨
-  NSW Ports는 항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 기반 운송 확대와 시설 최적화를 추진함

 - 지역 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해 캠블라항 해상풍력지구 조성, 보존지역 복원 등 중장기 사업을 진행함
 - 운영 인프라의 탄소 감축과 공급망 회복력 확보를 중점 전략으로 제시함
-  '25년 지속가능보고서는 공급업체 행동강령 도입과 지역사회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했다고 설명함

 - 항만-도심 교통 효율화, 에너지 관리 협력 등 공급망 차원의 개선 전략을 포함함
 - 탄소 감축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계·지역사회와 장기적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ATN(2025.11.12.), <https://www.fullyloaded.com.au/nsw-ports-achieves-net-zero-emissions-across-port-operations/>(2025.11.20. 검색)

6) 아프리카



1 남아공 트랜스넷, 더반 컨테이너터미널 장비 고도화에 약 5,370만 달러 투자³⁰⁾

- 트랜스넷(Transnet)은 더반 컨테이너터미널 피어2에 신규 안벽크레인 4기를 도입하며 약 5,370만 달러 규모 투자를 진행함
 - 신규 장비는 노후 STS 크레인을 대체하며 터미널 처리효율·선박 회전율·풍속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피어2는 남아공 컨테이너 물동량의 6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장비 현대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
- 신규 크레인 2기는 '25년 10월 인수·시험 운영을 추진하고 나머지 2기는 '25년 11월 인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트랜스넷 포트터미널(TPT)은 올해 피어1·2에 스트래들캐리어 20대, RTG 9대를 추가 배치함
 - 장비 확충은 터미널의 하역능력 회복과 운영 지연 완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트랜스넷은 신규 크레인 도입으로 선박처리 속도 향상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임
 - 장비 개선은 수출 중심 성장전략을 지원하고 터미널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남아공 도로화물협회는 항만 혼잡·내륙 반출 지연 해소를 위해 시스템 전반의 추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0) The Mercury(2025.11.06.), <https://themercury.co.za/2025-10-30-transnet-invests-r967-million-in-new-equipment-to-boost-durban-container-terminal-efficiency/> (2025.11.20.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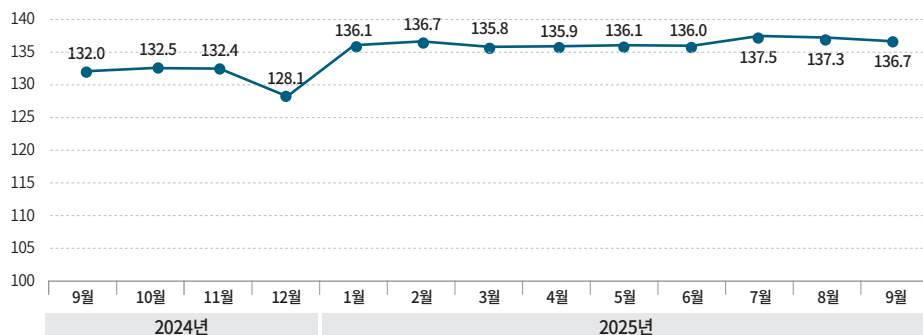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① '25년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0.4% 감소³¹⁾

● '25년 9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0.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6% 증가한 136.7p를 기록함

- 미국의 무역정책은 여전히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중국은 관세 합의에 대한 대응으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중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53.3p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함
- 유럽 항만의 처리량은 115.3p로 전월 대비 1.5%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32.0	132.5	132.4	128.1	136.1	136.7	135.8	135.9	136.1	136.0	137.5	137.3	136.7	-0.4	3.6
China Index	147.0	148.1	144.1	136.5	153.8	156.3	152.1	152.6	151.9	151.0	150.9	151.7	153.3	1.1	4.3
North Range Index	113.5	115.2	115.5	108.8	115.5	112.7	114.7	117.1	118.6	117.2	119.9	117.0	115.3	-1.5	1.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925\(2025.11.2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925(2025.11.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ISL(2025.11.03.),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925\(2025.11.21.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dex-0925(2025.11.21. 검색))

2 중동 지역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수에즈 운하 복귀 지연 전망³²⁾

가자지구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서 공격이 계속되면서 '23년 수준의 수에즈 운하 트래픽 회복 가능성은 단기간에 낮을 것으로 전망함

- 후티 무장조직은 분쟁이 재확산될 경우 홍해에서 선박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경고함
- 해운 분석업체 제네타(Xeneta)는 공격 중단 발표가 불확실해 선사가 홍해 항로의 안정성을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함
- CMA CGM이 11월 시험적으로 운항을 재개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수에즈 운하 통과 컨테이너 수는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알파라이너는 수에즈 복귀 시 사우디 연계 피더·셔틀·본선 서비스 및 아시아-북유럽 항로의 지중해 기항지 운영 전반을 대대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함
- 이러한 복잡한 조정 요인 때문에 선사들이 더 짧고 비용·탄소배출 측면에서 유리한 홍해-수에즈 항로로 완전히 복귀하려면 높은 수준의 안전성 확신이 필요하다고 분석됨

한편, 희망봉(Cape of Good Hope) 우회 항로 영향이 글로벌 운임에 부담을 주는 상황임

- 제네타는 긴 희망봉 우회 항로가 약 200만TEU의 선박을 흡수하고 있다고 추정하며, 이로 인해 올해 초 이후 아시아-유럽·지중해·미 동부 항로의 스팟 운임이 약 50% 급락했다고 밝힘
- 우회 운항 선박이 단기간에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공급이 급증해 특정 항로뿐 아니라 전 세계 운임이 추가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제네타는 '26년 글로벌 스팟 운임이 추가로 25%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수에즈 항로 복귀가 이뤄지더라도 상당수 구간에서 이미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평가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Seatrade Maritime(2025.11.12.),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middle-east-tensions-preclude-carriers-suez-return>(2025.11.21. 검색)

2) 양곡



1 '25년 10월 주요 곡물의 시카고선물거래소(CBOT)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변동을 보임³³⁾

● 밀 가격은 188달러/톤으로 전월(189달러)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215달러) 대비 12.7%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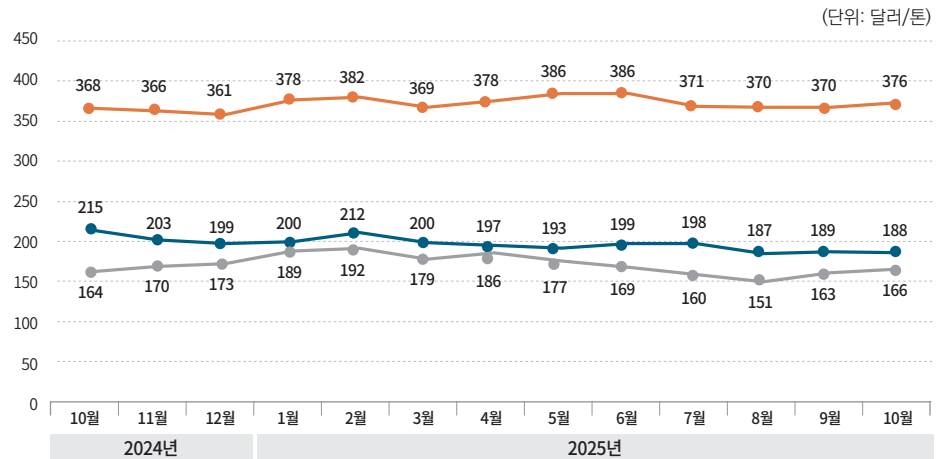
- 대두는 376달러/톤으로 전월(370달러) 대비 1.7% 상승하고, 전년 동월(368달러) 대비 2.0% 증가함
- 옥수수는 166달러/톤으로 전월(163달러) 대비 2.2%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164달러) 대비 1.6% 오른 것으로 나타남

● 가격 변동 폭은 곡물별로 차이를 보이며, 대두·옥수수는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밀은 소폭 하락함

- 전년 동월 대비로는 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두·옥수수는 각각 소폭 상승 흐름을 기록함

세계곡물 가격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215	203	199	200	212	200	197	193	199	198	187	189	188	-0.6	-12.7
대두	368	366	361	378	382	369	378	386	386	371	370	370	376	1.7	2.0
옥수수	164	170	173	189	192	179	186	177	169	160	151	163	166	2.2	1.6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곡물 가격동향(2025.10.30.), [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11.20. 검색\)](https://www.krei.re.kr/grain/page/242(2025.11.20. 검색))

② 미중 대두 무역정책 타결, 미국산 대두시장 회복 기대감 확대³⁴⁾

 미국농무부(USDA)와 중국 간 대두 무역정책이 타결되며 미국 대두 가격과 수출 전망이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음

- MarketWatch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대량 구매 약속이 재개되면서 미국산 대두 재고 부담 완화가 기대되며, 그간 고관세로 위축된 미국 농가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제기됨
- American Farm Bureau Federation은 이번 합의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의미하며, 대두 선적 일정 안정화와 수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함
- 다만 시장에서는 합의 이행 속도와 실제 구매량이 향후 가격 변동의 핵심 변수로 지목되고 있음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4) Market Watch(2025.11.14.), <https://www.marketwatch.com/story/heres-what-the-u-s-china-trade-truce-really-means-for-the-u-s-soybean-market-627a6cfe>(2025.11.20. 검색)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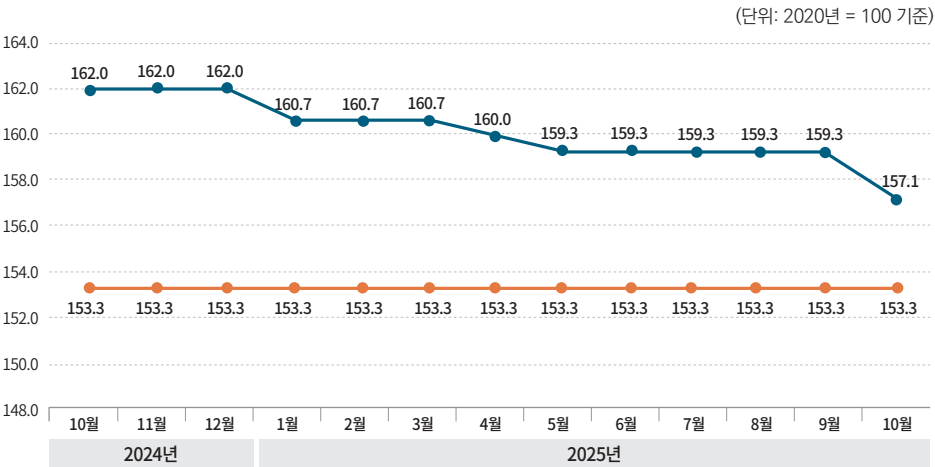


① '25년 10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1.4% 감소

- ’25년 10월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월 대비 1.4% 감소한 157.1 기록,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월과 동일한 153.3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지난 12월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로 시멘트는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임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0.7	160.7	160.7	160.0	159.3	159.3	159.3	159.3	159.3	157.1	-1.4	-3.0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0.24. 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0.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시멘트업계, 생산량 급감과 운송비 인상으로 경영 부담 심화³⁵⁾

- 국내 시멘트 생산량은 '24년 4,359만 톤에서 '25년 약 3,600만 톤으로 15% 감소하며 35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함

 - 건설경기 침체로 출하 부진이 지속되고 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확대됨
 - 일부 업체는 재고 누적을 이유로 소성로 가동을 장기간 중단함
- 소성로는 재가동까지 3일 이상·비용 3억 원 이상이 소요돼 운영 중단 시 부담이 크지만 수요 부진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 쌍용C&E는 10기 중 3기를 멈추고 있으며 가동 중단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함
 - 삼표시멘트, 한일시멘트 및 성신양회도 소성로 2기를 멈추며 생산량을 조정함
- '26년부터 시행되는 안전운임제 재도입으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비 상승이 예상됨

 - '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 기간 동안 BCT 물류비는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업계는 시멘트 가격 인상이 어렵고 운송비 부담이 커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함

시멘트업계 소성로 가동 중단 대수

쌍용C&E	3기 (10기)
삼표시멘트	2기 (5기)
한일시멘트	2기 (6기)
한라시멘트	1기 (4기)
아세아시멘트	1기 (3기)
성신양회	2기 (4기)
한일현대시멘트	0기 (2기)
합계	11기 (34기)

자료: 대한경제(2025.11.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291334132600585§ion=S1N0\(2025.11.20. 검색\)](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291334132600585§ion=S1N0(2025.11.2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5) 대한경제(2025.11.2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291334132600585§ion=S1N0\(2025.11.20. 검색\)](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10291334132600585§ion=S1N0(2025.11.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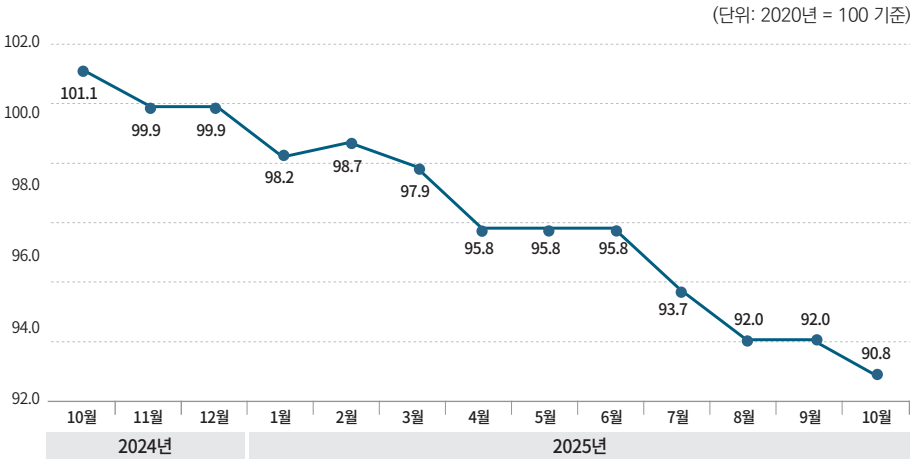
4) 모래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1.3% 감소

'25년 10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1.3%,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90.8p를 기록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01.1	99.9	99.9	98.2	98.7	97.9	95.8	95.8	95.8	93.7	92.0	92.0	90.8	-1.3	-10.2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0.24.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0.24.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인천 해역 바다골재 채취량 급감으로 골재업계·지자체 수익 감소³⁶⁾

-  인천 해역 바다골재 채취량은 '24년 420만 m³에서 '25년 153만 m³로 30% 수준으로 감소함

 - 건설경기 침체로 골재 수요가 예상보다 낮아지며 허가량 반납 사례가 증가함
 - 허가업체 13곳 중 9곳이 올해 허가량을 반납하면서 채취 가능량도 542만m³에서 242만m³로 축소됨
-  실제 채취량은 허가량의 63%에 그쳐 과거 평균 채취율 94% 대비 크게 낮아짐

 - 골재협회는 연간 1,500만 m³까지 채취 가능한 능력을 보유했으나 올해는 10%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함
 - 업체들은 수익성 악화로 선박 운영과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음
-  채취량 감소로 웅진군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세입도 '25년 예상치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듦

 - 해당 재원은 어민 지원사업에 활용됐으나 올해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임
 - 골재 채취 감소가 지역 어업·지자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골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건설업계는 공급 확대 중심의 부동산 정책 전환 필요성을 제시함

 - 장기 경기침체 시 골재·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골재협회는 비허가 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생산지 이력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함
-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바닷모래 부존량은 약 204억 m³이며 개발 가능량은 약 158억 m³로 평가됨

 - 누적 채취량은 약 4.2% 수준이며 정부는 5년 단위로 골재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해 관리함
 - 제7차 계획('24~'28년)은 전국 골재 수요를 총 1억 1,761만m³로 전망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36) 매일경제(2025.11.10.), <https://www.mk.co.kr/news/society/11463742>(2025.11.20. 검색)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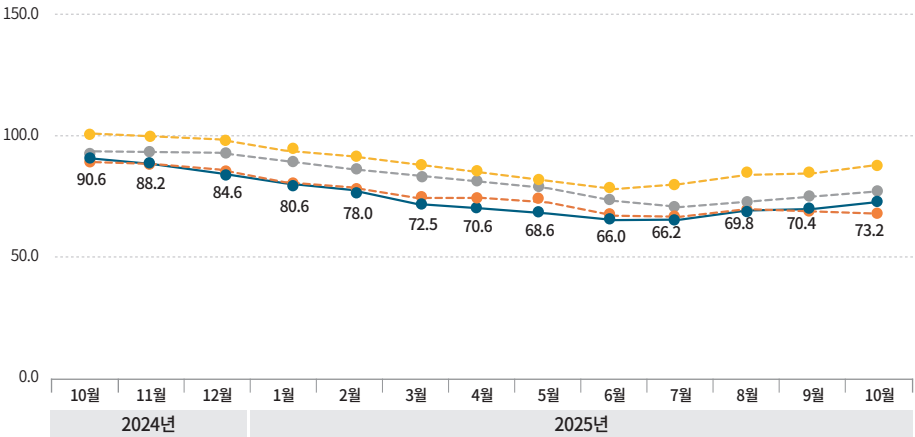
1 '25년 10월 유연탄 가격(뉴캐슬산) 전월 대비 증가

- '25년 10월 유연탄 가격(뉴캐슬, 5,000kcal/kg, NAR, FOB 기준)은 톤당 73.2달러로 전월 대비 3.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9.3% 감소함
- 7월 이후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른 추이에 겨울철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 살펴보면 리차드베이산(-2.0%)을 제외한 칼리만탄산(+1.9%), 중국남부산(+4.0%) 모두 전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단위: 달러/톤)

석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0.6	88.2	84.6	80.6	78.0	72.5	70.6	68.6	66.0	66.2	69.8	70.4	73.2	3.8	-19.3
리차드베이	89.1	88.3	85.9	81.1	79.0	74.8	74.8	73.0	67.8	67.4	70.4	70.1	68.6	-2.0	-22.9
칼리만탄	93.5	93.6	92.9	89.6	86.3	84.5	81.6	78.8	73.8	71.5	74.4	76.1	77.6	1.9	-17.0
중국남부	100.8	100.2	98.5	94.0	91.9	87.6	84.0	81.5	78.8	80.8	84.3	85.0	88.4	4.0	-12.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1.21\)](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1.21)) 검색)

2 미국 석탄 수요, 40년 만에 최대 증가세 기록³⁷⁾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석탄 산업의 부활 정책을 추진하면서 올해 미국 석탄 수요가 4억 2,2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행정명령을 통해 석탄을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을 이유로 석탄발전소 폐쇄를 중단하고 석탄 채굴 확대를 지시함
 - 이에 따라 올해 석탄 수요가 전년 대비 약 5,500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40년 만에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으로 평가됨
-  미국의 석탄 수요 급증은 글로벌 기후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중국은 '26~'30년 동안 석탄 소비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최근 중국 정부는 해당 기간 석탄 사용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감축이 아닌 정점 도달로 목표 수준을 낮춘 상황임
 - 전문가들은 미국의 석탄 퇴출 지연이 다른 국가에도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여 석탄 사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흐름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망함
-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곧 발표한 보고서에 세계 석탄 수요가 '30년까지 정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임

 - IEA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정점 도달 이후의 감소 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함
 - 이에 따라 석탄은 향후 10년간 세계 최대 전력 생산원으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될 예정임

37) 글로벌이코노믹(2025.11.12.), https://www.g-enews.com/article/Global-Biz/2025/11/202511120725211896fbbec65dfb_1(2025.11.21. 검색)

3 '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 석탄화력발전 감축 속도 증가 전망³⁸⁾

-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를 확정함
 - NDC는 '15년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5년마다 스스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며, 이번 목표는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와 감축기술 현실성, 미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단일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설정됨
- ❖ 전력 부문은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중심으로 감축전략을 제시함
 - 석탄 및 기타 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전력망 확충을 병행하여 '18년 대비 최대 75.3% 감축을 목표로 제시함
 - 이에 따라 NDC 달성을 위해 석탄화력발전 감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10.),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505>(2025.11.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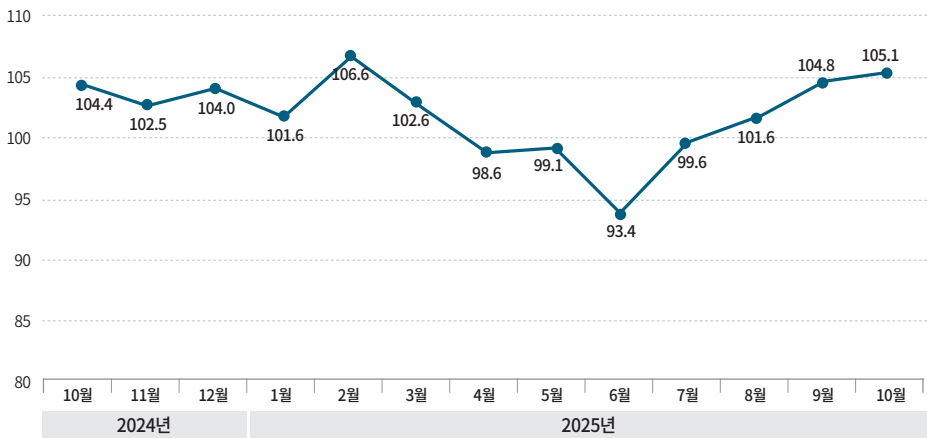
6) 철광석



철광석 가격 추이

1 '25년 10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0.7% 증가

- '25년 10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5.1달러로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이 철강 수요 건조 영향으로 철광석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겨울철 감소 시즌에 돌입되면 가격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4.4	102.5	104.0	101.6	106.6	102.6	98.6	99.1	93.4	99.6	101.6	104.8	105.1	0.3	0.7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1.21\)](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11.21))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기니 대규모 철광석 광산 시만두(Simandou) 가동³⁹⁾

중국 최대 지분을 보유한 기니 시만두 광산이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감

- 시만두는 연 1억 2천만 톤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은 호주·브라질산 철광석 의존도를 줄이고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철 함량 65% 이상인 고등급 광산으로 구성되어 채산성이 좋고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적어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큼

광산은 총 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중국·싱가포르 합작사인 워닝 컨소시엄 시만두(WCS, Winning Consortium Simandou)와 리오티토 등이 개발에 참여함

- 1·2블록은 WCS가 탐사·운영하고 있으며, 3·4 블록은 리오티토가 중국알루미늄업그룹(CHINALCO) 및 기니 정부와의 합작 형태로 운영권을 보유함
- WCS는 '19년 약 600km 철도와 철광석 수출용 항만 건설에 착수하여 올해 완공이 되어 11월부터 선적을 시작할 예정이며, 리오티토는 항만 시설 완공까지 약 1년이 남은 상황임

전체 블록 가동 시 전 세계 철광석 공급의 약 7%를 차지하게 되어 국제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시만두 철광석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공급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중국은 호주 BHP, 브라질 발레(Vale) 등 주요 철광석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됨
- 시만두가 향후 2년 반 동안 생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경우 현재 톤당 100달러 수준인 가격이 8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함
- 또한, 고품질 광석 공급이 확대되면 등급 저하와 비용 상승으로 경쟁력이 감소하고 있는 호주 필바라 광산 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제기됨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시만두 광산 개발로 인해 기니의 국내총생산량(GDP)이 향후 10년간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KITA(2025.11.14.),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3530ADB61117BFB416C8F7D1E923AD.Hyper?no=96658&siteId=2\(2025.11.21. 검색\)](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3530ADB61117BFB416C8F7D1E923AD.Hyper?no=96658&siteId=2(2025.11.21.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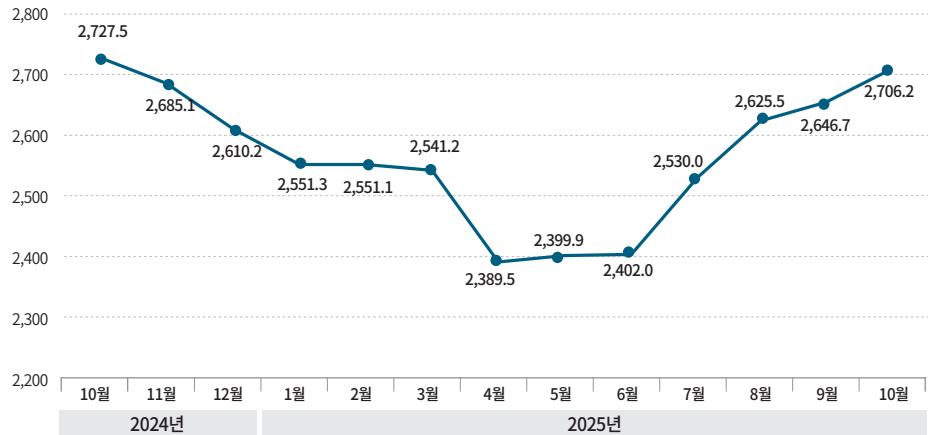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10월 광물종합지수는 2,706.2p로 4개월째 증가세

’25년 10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2,706.2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727.5p) 대비 0.8% 감소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2,541.2	2,389.5	2,399.8	2,402.0	2,530.0	2,625.5	2,646.7	2,706.2	2.2	-0.8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11.20. 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11.2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통영시·한국남부발전, 굴 껍데기 활용한 친환경 석회석 생산·공급 협력 체계 구축⁴⁰⁾

-  통영시와 한국남부발전은 굴 껍데기를 탈황용 친환경 석회석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공급 협약을 체결함

 - 협약은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 가동과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됨
 - 1차 시험은 진행 중이며 '26년 2월 2차 테스트를 예정함
-  남부발전은 굴 껍데기 석회석을 하동발전소 석회석 수요의 최대 40%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통영시는 연간 5만 톤 사용 시 자원화시설의 연간 목표량 8만 톤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함
 - 굴 껍데기 활용 확대는 발전소 친환경 연료 대체 비율을 높이는 데 기여함
-  통영시는 연간 15만 톤 발생하는 굴 껍데기 중 미활용 물량 증가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 자원화시설은 '23년 준공 이후 '24년 5월 운영업체 선정까지 지연되며 가동 우려가 제기됨
 - 현재 에코셀·테크로스·동성엔지니어링이 운영을 맡아 생산품 판매와 처리비로 운영비를 충당함
-  굴 껍데기는 소성 과정을 거쳐 탈황용 석회석 외에도 건설자재·사료·의약품·플라스틱 대체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

 - 통영시는 다양한 용도 개발을 통해 굴 껍데기 재활용 판로를 넓히겠다는 입장을 밝힘
 - 재활용 확대는 환경부담 해소와 지역 산업 연계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음
-  통영시는 이번 협약을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의 기반으로 평가하며 후속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 발생량이 많은 굴 껍데기를 지역 자원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목표임
 - 자원화시설 운영 안정화가 지역 해양환경 개선과 산업용 원료 확보에 기여할 전망임

40) 경남도민일보(2025.11.04.), [https://www.idomin.com/news/curationView.html?idxno=949513\(2025.11.20. 검색\)](https://www.idomin.com/news/curationView.html?idxno=949513(2025.11.20. 검색))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자료: 경남도민일보(2025.11.04.), <https://www.idomin.com/news/curationView.html?idxno=949513>(2025.11.20.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재



1 '25년 1~9월 원목 수입량은 111만 7천m³로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제재목, 성형목재, 합판, 파티클보드의 수입이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113만m³로 전년 동기 대비 10.3% 감소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56,95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함
 - 합판(-7.1%), 파티클보드(-19.0%), 섬유판(-34.9%)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300만 4천 톤으로 2.8%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목재 수요감소로 가격이 하락 또는 보합세를 유지
 - 8월 미국 주택건설은 개선 조짐이 없으며, '25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산업은 전년 대비 12.9% 감소하고, 독일 건설 부문 산업 활동도 9월에 계속 감소함
 - 미국 관세가 인도네시아 가구 및 수공예품, 베트남 목재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9월)	2024년 누적 (1-9월)	증감률 (%)
원목(천m³)	1,117	1,219	-8.4%
제재목(천m³)	1,129	1,258	-10.3%
성형목재(톤)	56,951	68,741	-17.2%
합판(천m³)	962	1,036	-7.1%
파티클보드(천m³)	884	1,092	-19.0%
섬유판(천m³)	149	229	-34.9%
목재펠릿(천 톤)	3,004	2,923	+2.8%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10.2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67&mn=AR01_04_02_03\(2025.11.24.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67&mn=AR01_04_02_03(2025.11.24.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수입 폐목재 펠릿, 국산 원목으로 속여 REC 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 포착⁴¹⁾

-  발전 5사의 우드펠릿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는 수입산 폐목재를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로 둔갑시켜 납품한 정황이 확인됨

 - 박정 의원은 발전 5사가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를 다수 확인함
 -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와 수입, 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발급을 중단했으나 관리 감독 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 감독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박정 의원은 실제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서 산업 현장 내 택같이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함
-  박정 의원은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함

 - 박정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함
 -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1) 아시아투데이(2025.10.29.),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9010011953\(2025.11.24. 검색\)](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029010011953(2025.11.24.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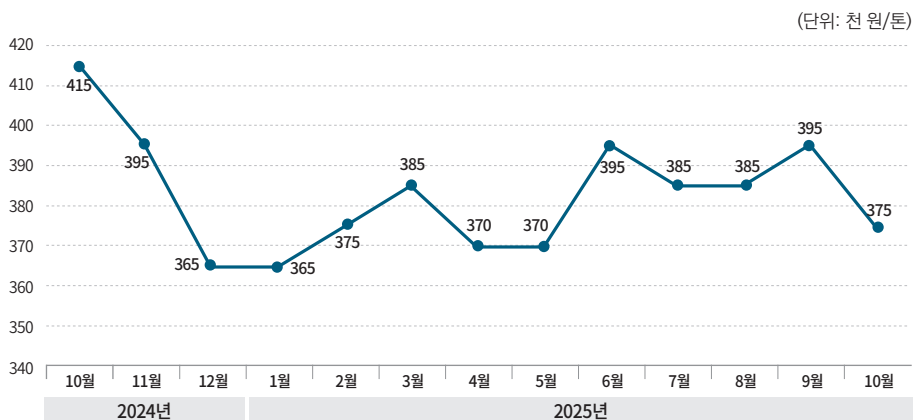
9) 고철



1 '25년 10월 고철 가격, 전월 대비 하락하며 약세 전환

- 📊 '25년 10월 국내 고철 평균가격은 톤당 37만 5천 원으로 전월(39만 5천 원) 대비 5.1% 하락해 단기 조정 국면을 보임
 - 전년 동월(41만 5천 원) 대비로는 9.6%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올해 가격은 1월 36만 5천 원에서 6월 39만 5천원까지 상승한 뒤 9월 고점(39만 5천 원) 형성 후 10월 재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상반기에는 2~3월 반등과 6월 상승이 있었으나, 하반기 들어 7~9월 보합세 이후 10월 조정이 발생함
 - 월별 변동 폭은 1~4월 36만 5천~38만 5천 원 범위에서 움직였고, 5~9월은 37만~39만 5천 원 수준을 유지함
 - '25년 누적 흐름은 단기 변동성을 보였으나 연간 평균은 '24년 대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자료: 산업통상부 원자재가격정보(2025.10.22.), [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1.20. 검색\)](https://www.motir.go.kr/kor/contents/103(2025.11.20. 검색))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2 철강산업 구조 재편 발표, 특수탄소강·저탄소 공정 중심 전환 추진⁴²⁾

-  정부는 '25년 11월 철강산업 구조 재편안을 발표하며 과잉설비 축소와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산업 전환을 추진함

 -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범용 철근·형강 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고려해 생산 구조를 조정하고, 특수탄소강과 저탄소 공정 기반 제품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제시됨
 - 이번 대책에는 공정 전환, 설비 현대화,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되며, 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정부는 제강 공정의 고효율화와 친환경 설비 확충을 지원하며, 글로벌 규제 강화에 대응한 저탄소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아울러 고급 철강 수요 증가에 맞춰 연구개발(R&D)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해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임
 - 이러한 산업 구조 변화는 고철 수요구조에도 단계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며, 관련 정책 이행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제기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1.04.),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3928>(2025.11.20.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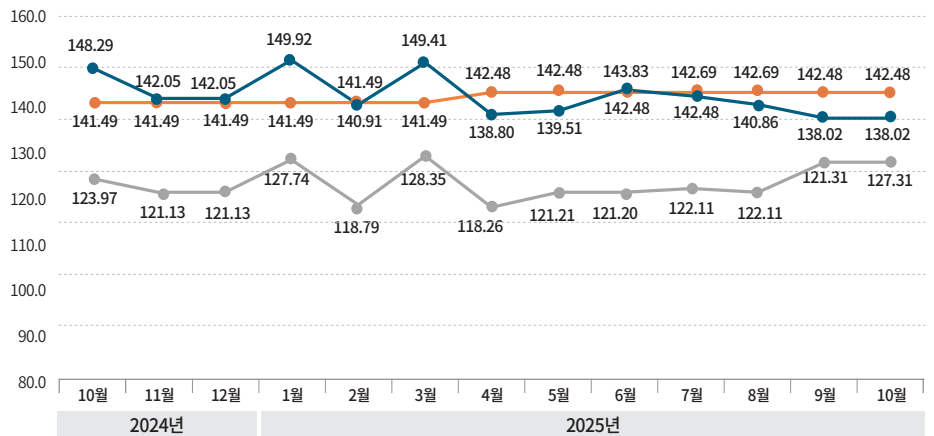
선철, 슬래브 및 빌렛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선철
● 슬래브
● 빌렛

1 '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선철·빌렛 상승, 슬래브 하락

- 10월 선철, 슬래브,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142.48p, 138.02p, 127.31p를 기록함
- 철광석을 고로에 투입하여 제선 공정 후 생산된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4월부터 소폭 올라 전년 동월 대비 0.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로를 통해 생산되는 조강의 대표 반제품 중 하나인 슬래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하여 6.9%p 낮은 수준을 기록함
- 그 외 조강의 대표 반제품 중 하나인 빌렛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하여 각각 2.7%p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철광석은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선철의 생산자물가지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슬래브와 빌렛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 변동이 발생함

(2020=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선철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1.49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142.48	0.0	0.7
슬래브	148.29	142.05	142.05	149.92	140.91	149.41	138.80	139.51	143.83	142.69	140.86	138.02	138.02	0.0	-6.9
빌렛	123.97	121.13	121.13	127.74	118.79	128.35	118.26	121.21	121.20	122.11	121.31	127.31	127.31	0.0	2.7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1.21.검색\)](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1.21.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중국산 냉연강판 우회덤핑 급증으로 국내 철강 산업 피해 확대⁴³⁾

❖ 중국산 저가 냉연강판이 우회덤핑 방식으로 대량 유입되며 국내 냉연 시장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음

- 국산 냉연강판 유통가는 톤당 91만 원, 중국산은 실거래 기준 75만 원 수준으로 20~30%의 가격 격차가 존재해 국내 시세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산 가격에 맞추기 위해 국내 유통가와 수출가격까지 조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며, 반덤핑 규제를 받는 국가로 분류될 위험도 제기됨
- '24년 4월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자 중국 업체들은 법률 자문을 통해 우회 방법을 찾았으며, 우회덤핑 시도는 후판부터 시작함
- 후판→컬러후판, 열연→냉연·폴하드 등 HS코드 변경을 통한 구조적 우회덤핑이 반복되면서 기존 규제가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며, 포스코·현대제철 등 주요 상공정 업체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이 발생하고 있음

❖ 업계는 우회덤핑 대응 한계를 지적하며 냉연까지 반덤핑 조치 확대 또는 품목별 쿼터제 도입 등 선제적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상공정 업체들은 냉연 반덤핑 확대를 요구하지만, 중간재를 사용하는 하공정 업체들은 비용 상승을 우려해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부가 도입한 '제3국 조립·가공'까지 포함하는 강화된 규제는 사후 대응 방식이라 최소 9개월이 걸리는 조사기간 동안 새로운 우회 방식이 등장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전문가들은 인도식 포괄 규제 도입이 부담된다면 캐나다·EU 사례처럼 품목별 쿼터제를 검토해 반덤핑 규제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3) 매일경제(2025.11.13.),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67715\(2025.11.19. 검색\)](https://www.mk.co.kr/news/business/11467715(2025.11.19. 검색))

3 철강 중소기업, 미·EU 고관세 대응 위해 정부 지원 대책 요구⁴⁴⁾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고관세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자 철강 수출 중소기업들이 정부에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월 10일 철강 수출 중소기업·협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미국·EU의 보호무역 강화와 이에 따른 애로사항을 논의함
 - 간담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 지속’, ‘EU집행위 신규 철강 무역제한 조치 예고’, ‘2026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으로 인한 철강 생태계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계 영향 중심의 논의가 진행됨
 - 정부는 ‘관세·CBAM 대응,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및 신규 과제 발굴’, ‘인공지능(AI)·연구개발(R&D) 등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 ‘사업전환 지원 등을 통한 국내 생태계 변화 대응’,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지원책’을 검토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4) 파이낸셜뉴스(2025.11.10.), <https://www.fnnews.com/news/202511101311434989>(2025.11.19. 검색)

4 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저탄소 전환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 추진⁴⁵⁾

정부가 고관세·공급과잉 등으로 위기를 겪는 철강산업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함

- 11월 4일 발표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은 ‘설비규모 조정 및 지원’, ‘해외 수출장벽 및 국내 불공정 수입 대응’, ‘기술개발, 인공지능(AI) 전환 및 수요창출’, ‘단계적 그린경쟁력 확충 지원’, ‘안전과 협력 강화’ 등 5가지 정책 과제로 추진될 예정임
-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을 대상으로 설비 규모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 환원제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추진하며 과잉설비 규모를 줄이면서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구상임
- 시장의 자율적 조정계획이 미진할 경우 자율적 조정계획 도출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며, 수입재 침투율에 따라 자율조정·수입 대응 순서로 구조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 경쟁력 유지 품목에 대해서는 특수탄소강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R&D 지원 등 고부가가치 전환을 촉진할 예정임
- 해외 수출장벽 대응으로는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미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융자 자금을 편성,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 공급을 집중할 계획임
- 불공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수입 대응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임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개발 등 미래 저탄소·고부가 기술 확보를 본격화하고, 산업 생태계·지역경제와 연계된 상생지원 체계를 강화함

- ’30년까지 특수탄소강 10종 개발을 목표로 약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세부적으로는 조선·에너지용 극한환경 특수탄소강 개발에 나설 계획임
-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위해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방안으로는 설비 조정·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검토, 지역 투자 촉진 등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임

45) 뉴시스(2025.11.0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3_0003388321(2025.11.19. 검색)

연내 수립 예정인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개요

특수탄소강	공급품목	주요용도	'24	'30
①고망간강 ②니켈강 ③크롬강 ④클래드강 ⑤스테인리스강	중후판 용접강관 무계목강관 주단강	▶조선 특수선박 외판용 ▶에너지 이·수송용 ▶초심도 시추 강관·튜빙 ▶고온·고압 동력부품	기술력 글로벌 3위	기술력 글로벌 1위

특수탄소강	공급품목	주요용도	'24 생산량(만톤)	'30 생산량(만톤)
⑥고규소강 ⑦LCE냉연강판 ⑧저아연용융도금강판 ⑨비열처리강 ⑩침탄합금강	→ 전기강판 → 냉연강판 → 아연도강판 → 무계목강관 → 주단강	▶고성능구동모터 ▶차체, BIW, 샤시 ▶구동축부품, 조향장치 ▶고출력변속기	80 130 11 57	100 160 15 70

자료: 뉴시스(2025.11.0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03_0003388321(2025.11.19.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1) 자동차



① '25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내수·수출·생산 모두 증가세⁴⁶⁾

- 9월 내수는 전월 대비 13.7%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0.8% 증가한 157,898대를 기록함**
 - 전년 대비 조업일수 증가와 신차효과, 친환경차 확대가 맞물리며 성장세가 이어졌으며, 한국지엠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체가 증가세를 보임. 특히 EV와 HEV 중심의 전동화 라인 신차효과가 두드러짐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6% 증가한 83,295대로 전체 내수의 52.8%를 차지함
 - 전기차는 전체적으로 135.0% 증가했으며, 국산은 EV4·EV5·PV5·무쏘EV 등 신차출시로 67.3% 증가, 수입차는 테슬라·BYD 중심으로 368.5% 증가. 하이브리드는 13.5% 증가, 수소차도 넥쏘 효과로 1,321대 판매됨
- 9월 수출은 전월 대비 13.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0% 증가한 228,189대를 기록함**
 - 추석 연휴 이동으로 조업일수가 늘면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SUV와 친환경차 중심의 수출 확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함
 - 친환경차 수출은 현대·기아 전기차 수출 회복과 SUV 하이브리드 라인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한 90,496대를 기록하여 전체 자동차 수출의 39.7%를 차지함
- 9월 생산은 전월 대비 4.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한 334,289대를 기록함**
 - 조업일수 증가와 내수·수출 동반 회복으로 전동화 모델 중심의 생산 확대가 이어졌으며, 일부 업체는 임단협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제한됨
 - 현대는 2.6% 증가, 기아는 30.0% 증가했으며, 한국지엠은 34.4% 감소, KG모빌리티는 51.6% 증가, 르노코리아는 6.5% 증가함

46)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9.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11.24. 검색)

'25년 9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9월	1~9월	8월	9월	1~9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1~9월
내수	1,626,245	130,688	1,189,826	138,824	157,898	1,261,853	13.7	20.8	6.1
(국산차)	1,344,432	104,282	982,541	110,352	123,030	1,023,554	11.5	18	4.2
(수입차)	281,813	26,406	207,285	28,472	34,868	238,299	22.5	32	15
OEM 수입	20,318	1,771	13,929	1,197	2,056	13,358	71.8	16.1	-4.1
수출	2,782,612	205,628	2,062,739	200,304	228,189	2,051,849	13.9	11	-0.5
(완성차 수출액)	70,786	5,482	52,902	5,491	6,405	54,082	16.6	16.8	2.2
(부품 수출액)	22,533	1,811	17,026	1,673	1,923	16,283	14.9	6.2	-4.4
생산	4,128,242	307,026	3,042,901	320,942	334,289	3,082,613	4.2	8.9	1.3

자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10.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Produce&board_id=926&menunum=0003&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11.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정부·현대차·기아,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 체결⁴⁷⁾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현대차·기아 및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 87개사와 함께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함

 -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가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음
 -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1차 협력업체를 지원하고, 1차 협력업체는 2차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연쇄적 탄소 감축 체계를 구축함

 -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하여 중기부와 함께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함
 - 산업부는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임
 -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  정부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임

 -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함
 - 노용석 중기부 1차관은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정부는 이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7) 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5.11.17.),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20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1.24. 검색\)](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201/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11.24. 검색))

3 미국 관세 영향으로 10월 자동차 수출 10.5% 감소⁴⁸⁾

-  산업통상부가 20일 발표한 '25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보다 10.5% 감소한 55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함
 - 자동차 수출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지난달 감소로 전환함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의 최대 자동차 수출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미국으로 수출이 지난해 10월보다 29% 감소한 2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함
 - 대미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관세 부과 이후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1~10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함
 - 1~10월 누적 기준 수출은 596억 달러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8) TBS(2025.11.20.), https://tbs.seoul.kr/news/newsView.do?typ_800=1&idx_800=3535032&seq_800=20527878(2025.11.24.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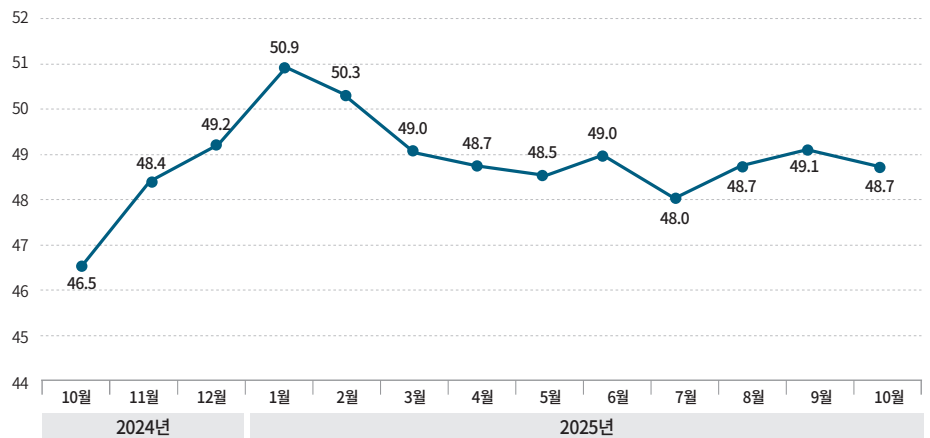


① 미국 제조업 PMI 48.7 기록, 8개월 연속 위축 국면 지속⁴⁹⁾

’25년 10월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전월(49.1) 대비 하락하며 8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를 기록함

- 생산지수는 48.2로 전월(51.0) 대비 위축되었으며, 신규주문(49.4), 재고(45.8), 수주잔량(47.9) 역시 감소 흐름을 보임
- 고용지수는 46.0으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졌고, 응답 기업의 67%가 인력 감축 또는 채용 보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격지수는 58.0으로 전월(61.9) 대비 완화되었으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배송 지수는 54.2로 3개월 연속 느린 납기 흐름이 지속됨
- ISM은 6대 제조업 중 식음료·담배 제품군과 운송장비만 확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함
- PMI 주요 구성지표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제조업 전반의 수요 둔화와 생산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11.01.),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9) Trading Economics(2025.11.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2025.11.20.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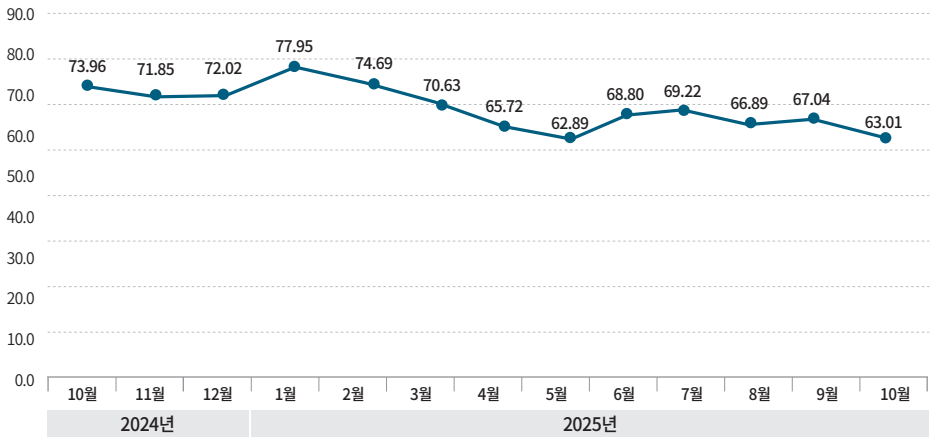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10월 국제유가, 전월 대비 3대 유종 모두 하락

- 10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6.0% 하락한 63.01달러를 기록함
 - 미국이 강력한 관세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석유 수입 둔화를 전망했으며, 세계 경기 위축 우려가 높아지면서 유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1월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4.2% 하락하여 저점을 찍었으나 6월에 반등한 다음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10월에는 5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함
 - 국제정세와 무역갈등,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당분간 유가는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증감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단위: 달러/배럴)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74.94	72.61	73.23	80.41	77.92	72.49	67.74	63.73	69.26	70.87	69.39	70.01	65.00	-7.2	-13.3
Brent	75.38	73.40	73.13	78.35	74.95	71.47	66.46	64.01	69.80	69.55	67.26	67.58	63.95	-5.4	-15.2
WTI	71.56	69.54	69.70	75.10	71.21	67.94	62.96	60.94	67.33	67.24	64.02	63.53	60.07	-5.4	-16.1
평균	73.96	71.85	72.02	77.95	74.69	70.63	65.72	62.89	68.80	69.22	66.89	67.04	63.01	-6.0	-14.8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11.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사우디아라비아, 12월 아시아 수출 원유 조정금(OSP) 인하 예정⁵⁰⁾

-  사우디아람코가 12월 인도분 아시아 수출 원유 조정금을 일제히 인하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에 따른 수급 완화 전망을 가격에 반영함
- 대표 유종 ‘아라비안 라이트’는 전월 대비 배럴당 1.20달러 내린 1.00달러 프리미엄으로 조정돼 11개월 만의 저수준을 기록함
 - 경질유 ‘슈퍼 라이트’와 ‘엑스트라 라이트’도 배럴당 1.20달러 인하됐고, 중질유 ‘헤비’는 1.40달러 내려 5개월 만에 프리미엄에서 디스카운트로 전환됨
 - OPEC+의 12월 증산 결정, IEA의 2026년 공급 초과 전망, 아시아 지역 수요 정체 등이 조정금 인하의 배경으로 분석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0) 뉴시스(2025.11.1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11_0003398697(2025.11.19. 검색)

3 국제에너지기구, '26년 하루 409만 배럴 공급 과잉 경고⁵¹⁾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공급 확대와 수요 둔화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로 '26년 글로벌 석유 시장이 공급 과잉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함

- IEA는 세계 석유 공급이 지속 증가하는 반면 수요는 역사적 평균 대비 완만하게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어 시장 균형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함
- '25년과 '26년 공급 증가는 각각 하루 약 310만 배럴, 25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달 예측보다 상향 조정된 수치로 공급 측 압력이 계속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수요 증가 폭은 '26년 하루 77만 배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석유화학 수요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

❖ 지정학 요인과 재고 증가도 공급 과잉 우려를 확대하는 가운데, 러시아·미국 등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출 변화가 시장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관련 협상 압박의 일환으로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루코일에 제재를 부과해 단기적 수출 차질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전반적 공급 증가세가 영향력을 상쇄하는 구조임
- '25년 10월 기준 글로벌 원유 생산량은 연초 대비 하루 620만 배럴 증가했으며, OPEC+와 비OPEC 산유국이 생산 확대에 균등하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 같은 기간 미국 원유 재고는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증가세를 기록해 공급 과잉 우려를 추가로 키우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급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조세일보(2025.11.14.),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11/20251114556769.html>(2025.11.19. 검색)

4 미국 천연가스 가격, 구조적 상승세 전망⁵²⁾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 미국 내 공급 부족, 겨울철 한파 등 복합 요인으로 향후 LNG 가격이 구조적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내 데이터센터 전력의 40% 이상이 천연가스로 충당될 만큼 AI 인프라 확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대비 즉시 대응 가능한 전력원이어서 수요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임
- 미국의 LNG 생산은 올해 약 4% 증가했으나, 수출은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미국은 올해 네 차례 월간 LNG 수출 신기록을 세우는 등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함
- 기상 분석기관 전망에 따르면 미국 동부·중부의 강한 추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단기 난방 수요가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수요 완화 국면에도 가격 저항선이 높게 형성되는 구조적 강세가 나타나는 중임

 글로벌기관·시장전문가는 AI 기반 전력수요 증가와 미국의 수출능력 확대로 LNG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음

-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LNG 가격이 최대 5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고 전망했으며, 야후파이낸스도 뻥뻥한 수급과 수출 증가 기대를 근거로 추가 상승 여력을 제시함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확대에 의해 '30년까지 천연가스가 연간 130TWh 이상 추가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분석하며 LNG가 주요 전력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내다봄
-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 포캐스트 에이전시(EFA)는 LNG 가격이 올해 말 5.718달러, 내년 말 6.718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며 이후 일부 조정 국면이 오더라도 전반적인 고가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을 제시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에너지경제(2025.11.12.),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51112024476396>(2025.11.19. 검색)

14) 화학공업 생산품



나프타 및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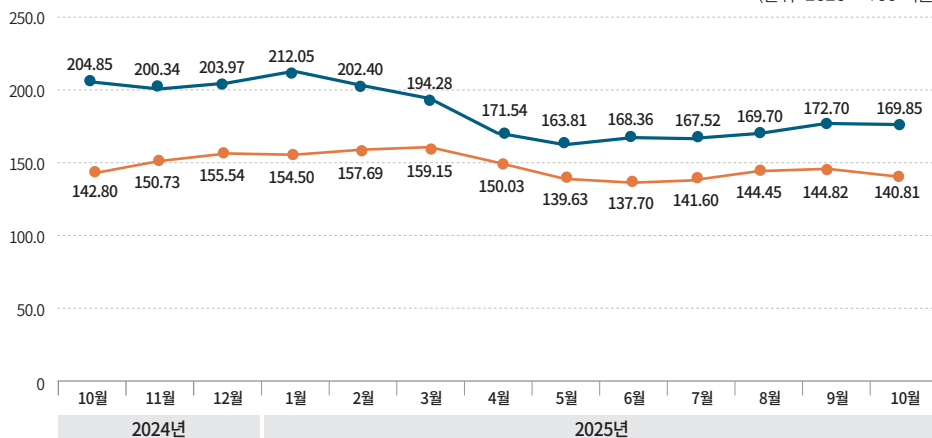
● 나프타
● 에틸렌

① '25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 나프타 및 에틸렌 전월 대비 소폭 하락

10월 나프타와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전월 대비 3.2% 하락한 169.85p, 2.8% 하락한 140.81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석유제품 중 하나인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하락이 시작된 1월 이후 동반 하락 후 5월에 저점을 기록한 다음 상승하였으나, 10월에 하락 전환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3월 이후 6월까지 하락했으며 7월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10월에 나프타와 함께 동반 하락 전환함
-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으로 정유산업과 함께 전방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NCC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업계 구조 개편이 예정됨에 따라 변동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단위: 2020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204.85	200.34	203.97	212.05	202.40	194.28	171.54	163.81	168.36	167.52	169.70	175.45	169.85	-3.2	-17.1
에틸렌	142.80	150.73	155.54	154.50	157.69	159.15	150.03	139.63	137.70	141.60	144.45	144.82	140.81	-2.8	-1.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1.21\)](https://ecos.bok.or.kr/#/SearchStat(2025.11.21)).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롯데건설, 인도네시아 초대형 석유화학단지 LINE 프로젝트 준공⁵³⁾

롯데건설이 약 5조 6,000억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LINE 프로젝트를 준공하며 석유화학 생산설비와 항만·유틸리티 인프라를 완공함

- 인도네시아 반텐주 찰레곤 지역 약 99만㎡ 부지에 조성된 이 프로젝트는 에틸렌 100만 톤, 프로필렌 52만 톤, BTX 40만 톤, PP 25만 톤, BD 14만 톤 등 연간 대규모 제품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함
- 롯데건설은 이 중 BTX·PP·BD 생산시설과 공장 운영용 유틸리티 기반시설, 항만시설 등을 시공함
- '22년 4월 착공 후 약 3년 6개월 만에 상업운영에 돌입했으며, 인도네시아 최초 NCC 가동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국산화 기반을 마련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HJ중공업, 4만 5,000㎥급 LPG·암모니아 운반선 기본설계승인 획득⁵⁴⁾

HJ중공업이 4만 5,000㎥급 중형 LPG·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해 영국 로이드선급(LR)으로부터 기본설계승인(AiP)을 획득하며 가스 운반선 선형 포트폴리오를 확충함

- 이번 선형은 기존 3만 8,000㎥급 LPG선·8만 8,000㎥급 초대형 암모니아선에 이어 개발된 모델로,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운반선 옵션을 확보한 것이 특징임
- HJ중공업은 로이드선급과 약 4개월간 공동개발을 진행하며 저온강재 적용 타입A 탱크 설계, 구조 최적화, 누출 감지·자동 환기 제어 등 암모니아 특성을 고려한 안전 설계를 구현함
- 전장 190m, 폭 30.6m 규모로 LPG·암모니아·염화비닐모노머(VCM) 등 다양한 액화가스를 적재할 수 있으며 국제 규정(IMO IGC Code)을 충족해 선주 운항 유연성을 높인 선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조선비즈(2025.11.10.),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1/10/UMSPUIZQFBCWHIYWGFPGPS4AO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11.19. 검색\)](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5/11/10/UMSPUIZQFBCWHIYWGFPGPS4AO4/?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2025.11.19. 검색))

54) 세계일보(2025.11.06.), [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06507816?OutUrl=naver\(2025.11.19. 검색\)](https://www.segye.com/newsView/20251106507816?OutUrl=naver(2025.11.19. 검색))

4 인도네시아의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로 글로벌 팜유 가격 급등 우려⁵⁵⁾

- 인도네시아는 내년 하반기 바이오디젤의 팜유 혼합 비율을 40%(B40)에서 50%(B50)로 확대할 계획이며, 글로벌 팜유 공급 부족 및 가격 급등 가능성이 제기됨
- 팜유는 기름야자 열매에서 짜낸 식물성 기름이며 주로 식용유로 사용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임
- 인도네시아는 연료 수입 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8년부터 팜유를 섞은 바이오디젤을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팜유 혼합 비율은 20%에서 시작해 '24년 35%, '25년 40%로 확대해왔으며, B50 시행 시 인도네시아 내 팜유 소비는 크게 증가하고 수출량은 줄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팜유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 팜유 수출량은 올해 3,100만 톤에서 내년 2,60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팜유 가격은 현재 톤당 4,145링깃 수준이나 인도네시아 팜유협회는 B50 도입 시 내년 상반기 톤당 5,000링깃, 일부 분석가들은 5,500링깃까지 오를 가능성을 예상함
- 인도네시아의 정책 변화로 인도·중국 등 주요 수입국은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하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관세 인상 가능성 및 영세 농가 부담 확대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5) KBS뉴스(2025.11.12.),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5624&ref=A\(2025.11.19. 검색\)](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405624&ref=A(2025.11.19.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11월 29일

편집·발행인 조정희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